

순천 종합병원 아지윈 탈의실 몰카

여성단체 “불법촬영, 고작 징역 10개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18일 “순천 한 종합병원 아지윈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이 고작 징역 10개월 선고라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광주여성민우회와 광주여성노동자회 등이 포함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종합병원에서 불법촬영을 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며 “광주고등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A씨는 다른 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병원 내 불법촬영이 발견된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삶을 근거로 하는 직장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기에 특정한 피해자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직장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10개월 판결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는 “우리는 항소심 재판 모니터링을 포함해 정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38)는 지난 7월쯤 전남 순천의 한 마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단순 몰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A씨의 휴대전화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지윈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며 구속됐다.

피해 여성 중 한명인 B씨의 유가족은 몰카 사건으로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이라며 하소연했다.

# 곳곳에 5·18 헬기사격 흔적 전일빌딩 외벽 ‘상처’ 공개

리모델링 완료 ‘전일빌딩 245’ 명명... 5·18 40주년인 내년 3월 개관



18일 오전 공사 가림막이 일부 철거된 광주 동구 전일빌딩 앞에서 한 시민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겨진 탄흔 자국을 가리키고 있다.

5·18 헬기사격의 총탄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전일빌딩 외벽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금남로 245번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외벽 가림막이 일부 철거됐다.

나머지 가림막은 다음 주 완전히 철거, 시민들이 전일빌딩 외벽 전체를 곧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이 사라진 전일빌딩 외벽 곳곳에는 주황색 야광 페인트로 그려진 원형 표시가 수두룩하다. 모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쏜 총탄 자국이다. 총탄 자국은 내부 193개, 외부 52개로 총 245개에 달한다.

현재 총탄 자국은 건축과 습식 처리 후 강화처리를 마친 상태다. 표면 강화제를 부착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거쳤다.

또 어두운 밤에도 5·18의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도록 주황색 야광 페인트로 탄흔을 주변을 원형으로 칠했고 ‘5·1’, ‘6·1’ 등 탄흔이 확인된 층과 개수를 숫자로 새겨 표시했다.

이날 전일빌딩 외벽을 마주한 시민 윤모씨(55·여)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그저 낡은 건물, 공사 현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놓으니 느낌이 새롭다”며 “많은 시민이 복원된 전일빌딩을 보고 5·18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한다는 김모씨(38)는 “5·18이 일어나고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끔찍하게 희생된 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복원된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외벽 작업을 마무리해 가림막을 철거했다. 내부는 총탄이 집중된 10층을 중심으로 관람·전시 형태로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시민들이 5·18의 역사와 아픔을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빌딩은 광주시가 지난 2월 5·18 진상규명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1988년 준공된 이후 4차례에 걸쳐 중·개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이번 공사로 전반적인 보수와 함께 기념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시는 총사업비 484억원(국비 130억원, 시비 354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10층을 리모델링해 5·18 당시 헬기 사격 등 탄흔을 원형 보존하고 5·18 기념 공간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도서관·시민 생활문화센터 등 시민문화 공간, 문화 콘텐츠 기업과 창업센터를 집적한 광주콘텐츠 창작소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 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 고유정,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법정에서 열린 전 남편 살인사건 7차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유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고 답했다.

한동안 침묵한 고유정은 “(피해자)가 접촉을 해왔고 미친척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그러면서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뉴스1

## 진도해상서 좌초한 199톤급 선박 구조

18일 오전 2시52분쯤 전남 진도군 장도 해안가에서 어획물운반선 H호(199톤급·부산 선적·승선원 5명)가 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

해경은 경비정 3척과 연안구조정 1척, 서해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면서 선장에게 승선원과 선박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했다.

오전 3시38분쯤 해경은 H호에 승선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날 오후 11시51분쯤 목포 동명항을 출발해 경남 마산항으로 향하던 H호가 선장 A씨(72)의 졸음운항으로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H호를 인양할 크레인인 도착할 때까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나주시 복어요리 먹은 마을주민 7명 병원 이송

전남 한 마을 주민 7명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전남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2시5분쯤 남평읍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이들을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전남 진도군에 사는 한 지인에게 손질된 복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로 돌아온 이들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에게 복어 요리를 부탁해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쓰레기 왜 마당에서 태워” 옆집 무단침입 행패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옆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왜 쓰레기를 마당에서 태우느냐”며 B씨(70대)의 집에 침입해 욕설과 함께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이들은 B씨가 마당에서 수차례 쓰레기 등을 태우자 매연과 불씨 날림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빌린 돈 갚아” 동네 후배에 흥기 휘두른 3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네 후배에게 흥기를 휘둘러 실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노상에서 B씨(37)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난 모르니 알아서 해라”는 B씨의 말에 격분, 미리 준비한 흥기로 B씨에게 흥기를 한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34)는 A씨의 부탁으로 A씨 차량에 있던 흥기를 옮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흥기로 찔렸다”며 범행을 시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고, 수개월 전부터 이자라도 납부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